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제도 및 정책 분석

-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System, and Policie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박 주 현 (Juhyeon Park)*, 김 지 현 (Ji-Hyun Kim)**
이 명 규 (Myounggyu Lee)***, 이 지 수 (Jisue Lee)****
Jonathan M. Hollister*****, 이 지 원 (Ji Won Lee)*****

< 목 차 >

I. 서론	III.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도
II. 국제기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도 분석	IV. 결론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포함된 UNESCO, IFLA, EU, OECD가 발행한 문서를 검토하였으며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법령과 정책 및 유관 기관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는 정규교육과정과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인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이 있는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였다. 도서관법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사서에게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이 부여되어 있으나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에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은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며 시민역량으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디지털 리터러시, 평생교육, 시민교육, 정보 격차, 저작권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draw implications from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 policies and educational systems. To this end, international policy documents issued by UNESCO, IFLA, OECD, and the EU as well as domestic South Korean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MIL and the functions of public libraries and related institutions were analyzed. The findings show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cognize public libraries as institu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information access and supporting knowledge sharing for citizens within and outside of formal education systems. Additionally, public libraries are seen as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supporting lifelong learning and civic education, as well as improving media, information, and digital literacy skills of their communities. In South Korea, the Library Act gives public libraries and librarians responsibility for improving citizens' MIL to support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o narrow the information gap. However, the functions of public libraries and librarians in South Korea have been limited or excluded in the domestic MIL polic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public libraries and librarians are responsible for reducing the information gap among citizens and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policy development to improve citizens' MIL skills.

KEYWORDS: Digital Literacy, Lifelong Education, Civic Education, Information Gaps, Copyright

-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park51566@jnu.ac.kr / ISNI 0000 0004 6814 4449) (제1저자)
-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ihkim@jnu.ac.kr / ISNI 0000 0004 8013 2301) (교신저자)
-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gyulee@jnu.ac.kr / ISNI 0000 0000 3622 0380) (공동저자)
-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islee@jnu.ac.kr / ISNI 0000 0004 7472 0115) (공동저자)
-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hollisterjm@pusan.ac.kr / ISNI 0000 0004 8513 885X) (공동저자)
- ***** 브라운 대학교 교육정책학 전공 석사(jiwon_lee1@alumni.brown.edu / ISNI 0000 0005 0815 6672)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2년 8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8월 26일 • 게재확정: 2022년 9월 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315-341,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315>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은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고 보편적인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기관이었으며 사서는 시민이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자였다. 오늘날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사서는 전통적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라는 자원과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중재자로서의 역할과(IFLA & UNESCO, 2022),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며 미디어 속 정보를 선택하고 평가하고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기관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박주현, 강봉숙, 2020; 이정미, 2021; 정영미, 2018; 최원실, 2021). 그러나 국내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에 도서관과 사서는 소외되고 있다.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NFIL(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와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에 의해서 승인된 알렉산드리아 선언문(Alexandria Proclamation of 2005)은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리터러시가 모든 계층의 개인이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이용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라고 하였다(UNESCO, NFIL, & IFLA, 2005). 그리고 UNESCO는 이러한 정보 리터러시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승인하여(Catts & Lau, 2008) 시민들의 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대 후반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윤리적이지 않은 콘텐츠 생산과 가짜 뉴스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평가하고 시민사회에 올바르게 참여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UNESCO(2011; 2021)는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융합하여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를 융합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 향상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각국에 촉구하였다. IFLA(2011)도 원하는 정보를 찾고 얻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역량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기본적인 인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역량으로 인정하였으며, 도서관이 평생학습과 정보 접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내에서도 교육부(2019a; 2019b), 방송통신위원회 외(2020),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 20대 대통령실(2022)은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외(2020)에서 추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방통위 외, 2020)에서 ‘도서관’과 ‘사서’는 한 번도 기술되지 않았으며, 20대 대통령실(2022) 국정과제에서는 장애인의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의 차원으로 ‘장애인도서관 건립’만이 기술되었다.

도서관법(법률 18547호)에는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디지털 기기 이용과 미디어 속 정보를 이해하는 정보해득력을 향상시킬 책무성이 있음이 제시되어 있으나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에는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제간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수용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와 국내 정부 부처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도서관의 위치와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구에서 제시된 공공도서관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역할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법과 정책 및 유관 기관을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갖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의 제도적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국제기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도 분석

UNESCO, IFLA, EU(European Union),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공공도서관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규정과 정책, 교육 과정 문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UNESCO와 공공도서관

UNESCO는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 교육센터로 인지하고 활용함으로써 진보된 문명을 촉진하고자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과 협력해 오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1945년 이래로 UNESCO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Laugesen, 2014). UNESCO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부문(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ctor)은 “말과 이미지를 통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이라는 UNESCO의 목표에 따라 표현의 자유, 미디어 개발,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콘텐츠, 청중, 출처, 시스템의 다양성을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다양성과 다원주의에 기여하고 있다(UNESCO, [n.d.]).

1949년 UNESCO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Jaime Torres Bodet(멕시코 교육부 도서관부 책임자)은 ‘공공도서관 확장’(McColvin, 1949)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도서관이 모든 계층과 인종, 종교 및 연령의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모든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하면서 도서관의 정보 접근과 시민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였다(Laugesen, 2014). UNESCO는 '공공도서관과 그들의 미션'(Maurois, 1961)을 통해 도서관은 시민의 평생학습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청소년, 남녀 모두가 모든 영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건설적인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공공도서관은 선전과 편견이 없으며 민주주의와 평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UNESCO(1994)는 1994년에 공개한 '공공도서관 선언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정보와 리터러시, 교육,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은 독서습관 강화, 문화적 다양성 촉진, 모든 종류의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 보장, 정보 리터러시 및 컴퓨터 리터러시 역량 향상, 모든 연령층을 위한 리터러시 활동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서는 이용자와 정보원 사이의 중개자이며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1997년 제5차 성인 교육에 관한 국제 회의(UNESCO/CONFINTEA)에서 채택된 '함부르크 선언'에서(UNESCO, 1997) UNESCO(1997)는 성인학습의 장소와 자원으로 도서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에 대한 진일보한 계기는 2014년 UNESCO의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파리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UNESCO, 2014). 이 선언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디지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모든 종류의 학교, 대학, 연수기관, 연구 집단, 지방기관, 국가기관, 국제기관)에게 미디어정보와 관련된 역량이 각국의 디지털 과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인권에 대한 논의에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윤리적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Frau-Meigs, 2017).

UNESCO(2018)는 '포용적 디지털 솔루션 설계 및 디지털 기술 개발을 위한 지침'에서 기술 지원과 구축에 대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서와 같은 정보 매개자가 현장 교육과 기술 지원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UNESCO는 성인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을 위한 접근점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Nikolitsa-Winter, Mauch, & Maalouf, 2019), 도서관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Deligiannis et al., 2021).

UNESCO는 정보 접근을 차별하지 않는 기회 균등과 형평성이라는 인권의 차원으로 해석하였으며, 성인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으로 연계하였다. 그리고 어떤 시민이든 차별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으며 결국 공공도서관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UNESCO는 UNESCO가 기존에 강조했던 기회 균등과 형평성, 평생교육, 시민교육에 정보·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융합 교육을 강조하였고 사서를 시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IFLA와 공공도서관

IFLA는 '정보 리터러시 섹션'과 '리터러시 및 읽기 섹션'을 포괄하고 있는 전문 부서(Professional Division E)를 통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IFLA 전문 부서는 '정보 리터러시 섹션'을 통해서도 도서관 및 정보 기관에서 정보 리터러시 교육 개발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리터러시 및 읽기 섹션'을 통해서도 리터러시를 증진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독서 연구 및 독서 개발 활동을 통합하고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각 매체와 독서의 상호작용 증진과 같은 읽기 및 기초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IFLA(1956)는 UNESCO의 공공도서관 선언문에 제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가치에 관한 IFLA 선언문을 1956년에 제시하였다. IFLA는 이 선언문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책과 관련된 형식의 기록물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유로운 개인 선택과 사상의 자유의 원칙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발표하여(Laugesen, 2014), 책을 포함한 인쇄 미디어와 정보의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후 IFLA는 UNESCO와 함께 정보 리터러시가 인간의 기본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역량으로 평생학습과 문화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보 리터러시를 강조하였다(UNESCO & IFLA, 1994).

IFLA(1999)는 UN이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999년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서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 창작물, 지적 활동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촉진시키며 검열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도서관은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지원해야 하며 모든 이용자가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지적 자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사서는 앞서 언급한 선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정보 접근과 지적 자유에 대한 사서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IFLA(2016)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관련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적절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시민의 빈곤과 불평등을 근절하고 농업을 개선하고, 품질 높은 교육, 건강, 문화, 연구 및 혁신을 추구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도서관은 민주적인 기관으로 표현의 자유를 달성하고 모든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의 출처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뒤처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기술 및 행동 개발을 촉진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과 공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술되었다.

IFLA(2016: 2020)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 이외에 정보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보 접근 여부에 따라 배움의 기회에 큰 격차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도서관의 역할은 교육 인프라의 중심에 있는 역량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IFLA의 주장은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 자료와 기기를 소유하는 것과 소유한 자료와 기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공공도서관 사서의 역할이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IFLA와 UNESCO(2022)는 2022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임무를 정보, 리터러시, 교육, 포용성, 시민 참여와 문화로 규정하면서, 공공도서관에서 모든 연령대의 리터러시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IFLA는 UNESCO와 함께 포용성과 시민교육을 포함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리터러시 및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디지털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발맞추어 도서관과 사서가 시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책무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EU와 공공도서관

유럽연합(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유럽의회, 유럽 이사회)이 도서관과 연관된 이슈의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주제들은 유럽 전역에서 공공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명확하게 중첩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내에서 이행되고 있는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 정책 및 계획은 도서관 활용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유럽의 도서관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도서관은 유럽연합의 권한이 아니므로 도서관에 관한 입법 권한은 없지만 TFEU(EU 기능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의 “제5조 보조성의 원칙”¹⁾에 따라 회원국이 이행하고 있는 정책을 조정, 지원 및 보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980년 초부터 유럽연합국은 도서관을 새로운 정보사회에 필요한 기관으로 인지하고 도서관과 협력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엿볼 수 있다.

1990년부터 1998까지 주로 국립도서관이나 큰 연구 도서관에서 수행된 ‘도서관을 통한 텔레매틱스’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 전체에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① 전산화된 참고문헌, ② 도서관 네트워크 및 시스템 상호연결, ③ 혁신적인 도서관 서비스, ④ 기술 기반 라이브러리 제품 및 서비스 등 정보 과부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찾고 사용하며 통합하는 단순화된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1) 3.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연합은 독점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분야에서 회원국이 제안된 조치의 목적을 중앙(central), 지역(regional), 지방(local) 수준에서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규모나 효과 면에서 연합수준에서 더 잘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입(act)할 수 있다. (Article 5 TFEU)

었다. 1997년 정보사회, 문화 및 교육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으로 작성된 모건 보고서는 유럽의회에서 처음으로 도서관을 정보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위치시켰다. 이 보고서의 결과로 유럽의회는 정부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그린페이퍼를 생성할 것이라고 하였다(Daskalaki, 1997). 1998년 작성된 유럽의회 자체 발의 보고서(Ryynänen, 1998)인 '현대 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은 최초의 도서관 정책 문서로 직접적으로 도서관 분야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조치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7차 유럽연합 카탈루냐 회의 보고서(1999)(Ryynänen, 1999)는 사회의 요구와 다양한 답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 정보사회의 발전과 전통적인 인본주의적 과업에 봉사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유럽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의 유럽연합 평생교육 선언문(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는 지식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습득과 지속적인 접근 보장을 위해 교육과 학습 그리고 가정과 연계한 학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도서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유럽 이사회에서 2002년에 채택한 EU 평생학습의 결의안은 유럽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개선시켰다(IFLA, 2004). 이 결의안에서 도서관은 지역 수준 서비스와 IC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평생학습을 위한 다목적 센터로 도서관의 시설과 자원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24년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Ursula von der Leyen 의장은 정책 우선순위 '교육', '디지털 포용', '민주주의', '사회적 포용' 등으로 설정한 뒤 6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도서관 참여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한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는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DEAP,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과 Erasmus+ 프로그램이 있다.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은 주로 유럽 시민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도서관과 메이커 스페이스, 랩랩(fablab)과 같은 비정규 교육 환경에서의 교육 또한 강조하고 있다. Erasmus+ 프로그램으로는 노인의 디지털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프로젝트인 DigitolEU, 성인의 유용한 온라인 콘텐츠의 접근과 평생학습 스킬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도서관 사서를 정보 교육자로 만드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동아리 학습'(The Learning in Circles in Libraries)이 있다.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5.11.25.)는 공공도서관이 포용성과 평등, 형평성, 비차별 및 민주적 시민권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시민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사회적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럽의회의 문화와 교육 위원회(CULT,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Culture and Education)는 성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이를 국가 및 지방 당국과 함께 장려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자 DEAP 정책에 따라 양질의 디지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비정규 교육 제공자중 하나인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Huysmans, 2016).

유럽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민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사서가 성인의 지식 습득을 지원하며 평생학습 역량 향상을 돕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OECD와 공공도서관

20세기 후반부터 OECD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역량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미래 역량에 공공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디지털 기기로 측정되는 리터러시 문항에 도서관과 정보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만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희망 도서를 신청하는 역량, 디지털 서평을 통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역량, 스팸 메일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문항, 웹서핑을 통해 특정 정보를 찾아 읽고 공유하기와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OECD, 2010; 2021a). 만15세가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서를 도서 자료 검색 시스템에서 찾는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측정하였다(OECD, 2013). PISA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OECD(2011)는 학생들의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학교 밖에서 독서를 즐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IFLA(2020.09.14.)는 OECD의 PISA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본 리터러시를 증진 시키는 일이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이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주장하였다.

OECD(2019)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에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시하였다. OECD(2021b)는 지식 부족 및 ICT 인프라 부족과 같은 장벽으로 인해 종종 저숙련 및 저학력 사람들의 사회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성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같은 기관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Ⅲ.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도 분석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관련된 법령, 조례를 살펴보고 중앙 정부 기관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과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어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업무 내용을 비교하고 제도적 관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법령 분석

가.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에 전부 개정되었다.

도서관법 [법률 18547호]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자료’는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중에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이는 도서관자료의 대상이 인쇄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 유형(책, DVD 등)과 미디어 형식(글, 이미지 등)이 포함됨을 알려준다. 동법에 제시된 ‘도서관서비스’에는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와 이용서비스,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의 유·무형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도서관서비스는 미디어 이용과 독서 기회 제공 그리고 미디어 속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교육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동법에 제시된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4조, 제9조). 즉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이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읽고 듣는 인지적 활동을 돕고 올바르게 정보를 이해하고 향유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헌법에 제시된 평생교육과 보편적인 교육의 형평성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기타 법률

교육부 소관 법률인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서는 정보 교육 진흥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미디어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수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에는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부 법률은 초중등학생을 넘어 대학생 그리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성인의 리터러시 향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에 제정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부터 제33조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설치와 직무 등이 제시되어 있다. 법률을 토대로 보았을 때, 언론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은 시민들의 신문과 방송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과 참여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미디어 교육을 시민 역량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 법 제13조에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이 포함된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문화콘텐츠를 비롯하여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동법에 제시된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동법이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책무성이 있는 공공도서관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2020년에 전부 개정되었다. 동법 제54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위 법에 명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을 포함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정보문화 확산과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인 공공도서관이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로는 유해한 매체물 유통을 등급 구분 등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공공도서관이 위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매체물의 상당수를 취급하고 있고 할 때, 공공도서관은 정보 접근의 자유와 미디어 유통 제한의 경계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무가 있음을 알려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위법 제90조의2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과 사업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법률을 토대로 보았을 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목적은 시민들의 방송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과 참여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는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제26조 제7호에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법과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법

법률명	주관 부처	주요 내용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 도서관은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 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 도서관자료란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 도서관서비스란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 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 조치 실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교육' 명시, 정보교육환경은 정보문화 소양, 정보적 지식·문제해결 능력 및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규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및 대학교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내용을 ① 접근 및 활용, ② 이해 및 비판, ③ 사회참여, ④ 민주적 소통 역량로 규정 •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 예방 교육 실시 가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에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수반 행위가 포함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한 매체물 유통을 등급 구분 등의 제도를 통해 규제 • 매체물을 개별 법에 명시된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과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공연,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 옥외광고물 등으로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 산업을 지원·육성 • 언론진흥기금의 용도에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이 규정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와 직무 등이 제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사업에 대한 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이 포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을 영화, 비디오, 음악,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제,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 콘텐츠,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대중문화예술산업, 문화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규정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과 사업내용을 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가 제시,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이 명시
정보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에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이 포함
평생교육법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조와 제40조에 문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

미디어정보와 관련된 법률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과 층위는 상이하였다. 교육부는 역량 교육과 학교폭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방 교육, 여성가족부는 유해한 매체물 관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과 산업, 정보격차 해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인쇄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까지를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보해득력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총괄해서 다루고 있는 법은 도서관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서관법에서도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문자 그대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 자치법규

2021년 10월 조사 시점에서 '미디어'가 포함된 자치법규는 총 147건(조례 141건, 시행규칙 6건)이 있었다. 이중 관련이 있는 조례 141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79건은 지자체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나머지 62건 중 미디어 센터(재단)의 설치나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26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구민, 마을공동체)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 참여와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25건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밖에도 미디어 아트 도시나 디지털미디어 시티 조성, 지역 미디어 발전 기반 조성으로 각 1건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

8개의 시·도 교육청(경기,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은 학생들의 미디어와 정보(콘텐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역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조례(총 8건)를 제정하였다. 이 중 6개의 시·도 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미디어 정보(콘텐츠)가, 2개의 시·도 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미디어 교육이 포함되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위 법은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조례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례와는 차별된다.

라. 시사점

대한민국헌법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국민이 기회를 균등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은 도서관이 인쇄 및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통해 평생학습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에 규정된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와 이용 서비스,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의 유·무형 서비스로

결국 도서관 서비스는 미디어 이용 및 독서 기회 제공과 더불어 미디어 속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미디어 관련 조례는 정보(콘텐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정보 리터러시가 사서들의 서지 교육에서 확대된 역량 교육이며(박주현, 이병기, 강봉숙, 2021; Mittermeyer et al., 2003) 마을공동체에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관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때, 미디어 관련 조례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관계된다(박주현 외, 2022).

관련 법령은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책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나 공공도서관의 업무, 그리고 사서의 역할로 정보·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이들 리터러시가 융합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가 자치법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2. 정책 분석

가.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방통위, 문체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는 2020년에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5개 부처는 합동으로 디지털 공동체에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4대 전략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 (방통위 외, 2020)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1.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교육 인프라 전국망 확대 •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 • 온·오프라인 융합 미디어교육 모델 개발 	3.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정보판별 교육 강화 • 미디어 기술·텍스트 이해 교육 확대 • 팩트체크 교육콘텐츠 제작·보급
2.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촘촘한 디지털 미디어교육 실시 • 신기술 활용 미디어제작교육 강화 • 방방곡곡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강화 	4.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사회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 지역 공공체미디어 지원 확대 • 일상생활 속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

첫 번째 전략과제로 제시된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전략에는 E-러닝 시스템, 시민제작 콘텐츠, 주변 배움터, 관련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운영 방안이 담겼다. 두 번째 전략은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역량 강화로 대상자를 생애주기별 정보 취약계층별, 수준별, 후속 활동(동아리, 소모임)으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 전략은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이다. 세 번째 전략은 미디어 속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며 인터넷서비스의 추천원리(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콘텐츠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네 번째 전략은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으로 사이버 폭력, 혐오 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미디어 기기 사용 교육, 공동체 라디오 확산과 지역 공동체의 미디어 참여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은 서비스 대상자를 상세하게 구분하였고 시민교육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미디어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시민성 향상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문서에 '도서관'과 '사서'는 한 번도 기술되지 않았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에서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라는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지를 갖추고 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이다. 최신의 콘텐츠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활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의 활용 가능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도 실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중요한 방법적 요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저작권이 있는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정이용 기관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지역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 기관으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에서의 저작권 허용과 콘텐츠 활용, 신뢰성 있는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국가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의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시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다. 교육부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교육부(2019a)는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는 미디어교육으로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규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의 중심축인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디어 관련 조례 제정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된 시민들의 마을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이 생애주기별로 시민들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는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필요성과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한 내용으로 ① 사서교사의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범교과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으로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 ② 독서교육 등 범교과 주제와 연계한 NIE 프로그램 운영, ③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게 생산·소통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시민을 양성, ④ 학교도서관 연계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 등 올바른 정보윤리 의식 함양 교육 지원과 신뢰도 높은 정보 선택 및 자료 활용시 객관적 시각 견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 생산에 대한 책임 및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 ⑤ 인쇄 미디어 외 전자정보원, 멀티미디어 등 최신의 다양한 장서 등의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는 2019년에 도서관이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 사람에게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4대 전략 방향과 13개의 핵심 과제, 36개의 추진과제가 담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도서관이 인쇄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관여하는 기관인 만큼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담긴 핵심과제와 추진과제는 모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관련된다. 이 중에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7개의 추진과제는 <표 3>과 같다.

<표 3>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추진과제

핵심과제	추진과제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사서의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전자책 접근 및 와이파이 설치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 접근 기회 확대, 건강·법률·공공정보 등을 포함하는 국가 공공정보 서비스 확대,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역 공공도서관이 지역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관리,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디지털 기기 이용 등의 정보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정보 취약계층에게 맥락이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서의 역량 향상을 통한 이용자의 민주시민역량 향상에 기여가 제시되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리터러시 및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격차와 정보 격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계획서에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민주시민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서의 정보·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재교육 정책이 담겨 있다.

마. 시사점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는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전략(3-1-2)에 따른 추진과제로 '맥락이해 문해력 교육 개발 및 보급, 미디어 활용 교육 개발 및 교육 강화'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 외(2020)가 제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에 도서관은 한 번도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국내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과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과 정책으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서교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책무성이 있다는 것으로 공교육 밖에 있는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역할과 책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유관 기관의 운영 내용 분석

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인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도 수집하고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쇄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들 미디어 속 정보를 해독하는 시민 역량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직원의 훈련을 통해 개별 공공도서관이 인쇄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및 협력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성이 있다.

나. 유관 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동법에 제시된 주요한 직무는 신문과 뉴스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업에 해당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맞춤형 언론인 교육 사업과 콘텐츠(뉴스, 잡지) 생산 지원, 학교 미디어 교육과 사회 미디어 교육 사업, 언론(뉴스, 신문) 콘텐츠 유통 및 콘텐츠 활용 지원, 정부 광고 업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와 신문과 뉴스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이트인 포미(www.forme.or.kr)를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 2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법에 제시된 주요한 사업으로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참여(체험), 방송시설 및 장비 지원, 팩트체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디어 교육 온라인 사이트 미디어온(edu.kcmf.or.kr)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총 10곳의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지원, 데이터 관련 시책 수립, 정보 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지원, 정보문화의 창달 지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문화산업 진흥, 콘텐츠 자료의 수집 보존 활용 이용촉진, 게임 역기능 해소,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주요한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다양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연구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다는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활성화를 주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설립 되었으며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분석과 홍보 및 교육·훈련, 인터넷 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이 주요한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리터러시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14조에 의거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영화의 유통 배급 지원,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영화산업에서 인권

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21조에 의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불법 정보의 유통,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직무로 다루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교원의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 원격 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기관 비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유관 기관들이 다루는 중심이 되는 미디어 종류가 달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시청자미디어 재단은 방송을, 영화진흥원은 영화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과 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 유통 정보를 주요한 미디어로 다루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에 만화애니, 무용, 연극, 사진 등의 미디어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었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인쇄, 신문, 잡지, DVD,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의 종류를 다루고 있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사이트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포미'를, 시청자미디어 재단은 '미디어온'을 서비스하고 있었으나 플랫폼의 기능은 없었다.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요 기관에 대한 비교는 <표 4>와 같다.

<표 4>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요 기관 비교 (이명규 외, 2021, 50)

내용 \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특성	정보 제공 미디어	언론 미디어	언론 미디어
주요 주제	미디어(장서)	신문, 뉴스	방송
주요 교육 내용	정보 리터러시, 도서관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방송 제작
시민 참여 가능 기관수 (2020년 기준)	1,176곳 - 국립도서관 4곳 - 공공도서관 1,172곳	.	시청자미디어센터 10곳
핵심 가치	시민의 정보 접근 보장	저널리즘과 민주사회 구현	시청자의 방송 참여
주요 사업	미디어수집 및 제공, 정보 서비스, 콘텐츠 제공, 사서 교육	언론인 교육, 미디어교육, 정부 광고, 지역신문발전	미디어 교육, 방송 시청, 방송 제작,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 법	도서관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운영 및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사립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이트	.	포미(FORME)	미디어온(MediOn)
주 이용 대상	시민, 학생, 교사, 사서	교사, 미디어 강사	시민
특징	신뢰성 있는 정보원 제공, 실물 미디어 제공, 문화 및 학술 공간 제공, 디지털 도서관 운영	뉴스 전문 교육 자료 제공, 빅카인즈(뉴스 데이터베이스) 운영	방송 제작 체험, 방송 기기 대여

라. 시사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미디어 기관이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언론 미디어 기관이 아닌 신뢰성이 있는 정보제공기관인 공공도서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공도서관과 사서는 시민들의 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로운 표현 활동과 사회 참여 활동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문제 해결 역량 향상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돕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유관 기관의 미디어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10개의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기관들은 지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1~2개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공공도서관은 전국 시군구에서 1,172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을 때, 공공도서관을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보다 사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부족하였다. 학생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와 강사 양성에서부터 교재 개발, 동아리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은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이는 책무성의 측면에서 초중등학생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교육부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인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향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부재한 것이 원인이다.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을 대면하는 이가 교사라고 할 때, 초중등학교와 같이 물리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밖 시민들을 대면하는 이는 사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은 사서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시군구에 소재해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게 리터러시 학습을 지원하는 성인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역량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쇄 미디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사서가 온·오프라인으로 대면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진흥재단, 교육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 이용자는 초·중등학생과 교사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였으며 개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시민들이 저작권을 자유롭게 이용하고(이호신, 정경

회, 2020),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핵심 기관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때,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접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뉴미디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승민, 2021).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와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 제도를 분석하고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을 고찰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기구에서 제시된 공공도서관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역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UNESCO는 인종이나 종교 및 연령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공공도서관을 인식하였다.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도서관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연관되며 나아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확대되면서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성인교육과 시민교육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과 민주주의 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또한, UNESCO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역량인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의 민주적이고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융합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핵심적 기관으로 도서관을 활용하였다. 이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세계시민교육과 학교 밖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IFLA는 도서관의 지적 자유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도서관은 시민들이 인쇄 및 디지털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검열에 반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 저작권과 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정보 접근과 공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도서관이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국내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저작권이라는 벽을 넘어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도서관의 정보 공유와 공정이용, 지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하는 근거를 뒷받침한다.

셋째, 유럽연합 문서에서 도서관은 시민들의 기술 습득과 미디어와 정보의 접근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과 자원이 풍부한 공공기관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 서비스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학교 밖 시민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정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넷째, OECD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기술 향상에 대한 평생교육을 언급하며 공공도서관

을 평생교육 기관으로 인식하였으며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으로 도서관 활용 능력과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측정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이 디지털 시대에서도 꼭 필요하며 나아가 국민과 지역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국제기구는 공공도서관이 정규교육과정 내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시민도 정보에 접근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국제기구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이 있는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을 인식하고 활용하였다고 할 때, 국제기구의 사례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법과 정책 및 유관 기관에 대한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법은 도서관이 시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향상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게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에 접근 및 이용하고 콘텐츠를 포함한 정보의 획득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도서관법에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교육 서비스의 대상과 교육에 활용되는 미디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의 대상이 도서관 이용자를 넘어 전체 시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교육에 활용되는 미디어도 도서관이 수집·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를 넘어 전통적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까지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서관법에 UNESCO가 제시한 미디어·정보·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들 리터러시를 융합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향상을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에 포함하여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시민들의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책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 중심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신뢰성이 있는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인쇄 미디어와 디지털 정보원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하고 제작하고 공유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와 교육 자료를 공유하는 디지털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시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할 때,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사서와 지역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자료와 결과물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은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국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은 학생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활동에 비하여 학교 밖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활동은 부족하였다. 학교 밖에서 정보가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는 대면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접근성이 있

으며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기와 자료,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수준과 집단별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하며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하고 결과를 평가받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외(2020)가 제시한 '디지털 미디어 종합 계획'에서 제시한 네 가지 전략은 모두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위 계획서에서 도서관과 사서는 한 번도 서술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부처에서 공공도서관과 시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의 연관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거나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공공도서관 관계자가 배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여러 문서와 정책에서 보았듯이 공공도서관은 정보 접근의 자유를 통해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을 실현하며 시민들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성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UN, UNESCO, OECD, IFLA 등의 국제기구에 참여하며 이들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정책 문서를 토대로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의 역할을 설명하며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라는 자원과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중재자인 사서(IFLA & UNESCO, 2022)는 정보 리터러시 전문가이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 사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기반으로 정보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세계 시민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사서가 시민들의 정보해독력 강화를 포함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 현장과 연계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9a).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 교육부 (2019b).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 도서관법. 법률 18547호.
- 박주현, 강봉숙 (2020).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과 교육내용 개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23-250.
- 박주현, 강봉숙, 이병기 (2021).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교과 내용 체계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1), 229-254. 10.16981/kliss.52.1.202103.229
- 박주현, 이명규, 김지현, 강봉숙, 이지수, 심효정, Hollister, J. M. (2022). 공공도서관 기반 미디어

- 리터러시 교육 모형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335-362.
-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2020).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 이명규, 김지현, 강봉숙, 이지수, 심효정, Hollister, J. M., 박주현 (2021). 도서관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이승민 (2021). 디지털 자본의 형성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21-540.
- 이정미 (2021). 가짜뉴스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 및 제공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85-106.
- 이호신, 정경희 (2020). 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저작물 디지털 서비스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한 검토. 정보관리학회지, 37(3), 107-131.
- 정영미 (2018). 미국 공공도서관의 성인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359-380. 10.4275/KSLIS.2018.52.1.359
- 최원실 (2021).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6.
- 20대 대통령실 (2022). 120대 국정과제. https://www.president.go.kr/ko/task_new.php
- Catts, R., & Lau, J. (2008). Towards Information Literacy Indicators: Conceptual Framework Paper. Paris, France: UNESCO.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 A Memorandum of Lifelong Learning. Available: https://arhiv.acs.si/dokumenti/Memorandum_on_Lifelong_Learning.pdf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5, November 25). 2015 Joint Report of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Framework for European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ET 2020): New Priorities for European Cooperation in Education and Training. Available: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4440-2015-REV-1/en/pdf>
- Daskalaki, K. (1997). On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upon the Press in Europe. DOI: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4-1997-0289_EN.html
- Deligiannis, D., Fleming, T., Tsiougou, K., Goutha, V., & Moutselos, A. (2021). Citizenship Education for Democratic and Sustainable Communities. 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 Frau-Meigs, D. (2017). Public Policies i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Europe. Cross-Country Comparisons. New York: Routledge.
- Huysmans, F. (2016). Research for CULT Committee-Promoting Media and Information

- Literacy in Libraries. Brussels: European Union. Available: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7/573454/IPOL_IDA\(2017\)573454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7/573454/IPOL_IDA(2017)573454_EN.pdf)
- IFLA (1999).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1441>
- IFLA (2004). The Role of Libraries in Lifelong Learning. Available:
<http://archive.ifla.org/VII/s8/proj/Lifelong-LearningReport.pdf>
- IFLA (2011). IFLA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Recommendations.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ations/ifla-media-and-information-literacy-recommendations/>
- IFLA (2016). Access and Opportunity for All: How Libraries Contribute to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243>
- IFLA (2020). Libraries in Digital Skills Policies: Policy Areas, Mechanisms, Practices. Available:
https://cdn.ifla.org/wp-content/uploads/files/assets/hq/topics/info-society/documents/libraries_in_digital_skills_policies.pdf
- IFLA (2020, September 24). Library Stat of the Week #37: The Connection Between Having Access to a Library and Enjoyment of Reading is Strongest Among Children in Austria, France and Montenegro. Available: blogs.ifla.org/lpa
- IFLA & UNESCO (2022).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2006>
- Laugesen, A. (2014). UNESCO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y idea, 1948 to 1965. *Library & Information History*, 30(1), 1-19.
<https://doi.org/10.1179/1758348913Z.00000000052>
- Maurois, A. (1961). *Public Libraries and Their Mission*. Paris: UNESCO.
- McColvin, L. R. (1949). *Public Library Extension*. 2nd. UNESCO Public Library Manuals. Paris: UNESCO.
- Mittermeyer, D., Quirion, D., Archambault, C., Carrier, P., Grant, S., Guilmette, P., Healy, E., Hébert-Erban, M., Labelle, P., Nicholson, K., Proulx, M., Sauv , D., Sheeran, R., & Tardif, D. (2003). *Information Literacy: Study of Incoming First-year Undergraduates in Quebec*. Quebec: Bibliotheque
- Nikolitsa-Winter, C., Mauch, W., & Maalouf, P. (2019). *Address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Summary Report*. Hamburg: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 OECD (2010). PISA 2009 Assessment Framework: Key Competencies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Paris: OECD.
- OECD (2011). PISA 2009 at a Glance. Paris: OECD.
- OECD (2013). The Survey of Adult Skills: Reader's Companion.
<http://dx.doi.org/10.1787/9789264204027-en>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A Series of Concept Notes.
- OECD (2021a).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a83d84cb-en>
- OECD (2021b). OECD Skills Outlook 2021: Learning for Life.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0ae365b4-en>
- Ryynänen, M. (1998). Report on the Green Paper on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Modern World. Available: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4-1998-0248_EN.html
- Ryynänen, M. (1999). The Role of Libraries in Modern Society. Col·legi Oficial de Bibliotecaris Documentalistes de Catalunya (Official Collegiate of Documentary Librarians of Catalonia). Available: <http://www.cobdc.org/jornades/7JCD/ryynanen.pdf>
- UNESCO (1956).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10, 11-12, 255.
- UNESCO (1997).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Final Report. Availabl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10364>
- UNESCO (2011).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Teachers. Paris: UNESCO.
- UNESCO (2014). Paris Declaration on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in the Digital Era. Paris: UNESCO.
- UNESCO (2018). Designing Inclusive Digital Solutions and Developing Digital Skills. Paris: UNESCO.
- UNESCO (2021). Think Critically, Click Wisely!: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Curriculum for Educators and Learners. Paris: UNESCO.
- UNESCO [n.d.]. Communication & Information. Available:
<https://en.unesco.org/themes/communication-and-information>
- UNESCO & IFLA (1994).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1994.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ations/iflaunesco-public-library-manifesto-1994>
-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1997).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Hamburg, Germany. Available:

<https://uil.unesco.org/adult-education/confintea/adult-education-hamburg-declaration-agenda-future>

UNESCO, NFIL, & IFLA (2005). High-Level Colloquium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Bibliotheca Alexandrina, Alexandria, Egypt, November 6-9, 2005. Available: <http://eprints.rclis.org/3829/1/alexfinalreport.pdf>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Wonsil (2021).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Digital Media Literacy Education in Libraries. National Library of Korea, 6.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The 3rd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2019-2023).

Jung, Youngmi (2018). A study on digital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in US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359-380. 10.4275/KSLIS.2018.52.1.359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20). Comprehensive Plan to Strengthen Digital Media Communication Capabilities.

Lee, Hosin & Jung, Kyounghee (2020). Possibility of transmission for works beyond library fence: review on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107-131.

Lee, Jeong-Mee (202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provision of universal lite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ra of fake new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85-106.

Lee, Myounggyu, Kim, Ji-Hyun, Kang, Bong-suk, Lee, Jisue, Sim, Hyojung, Hollister, J. M., & Park, Juhyeon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based Media Literacy Education Guidelines. National Library of Korea.

Lee, Seungmin (2021).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for the formation of digit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21-540.

- Libraries Act. Act No. 18547.
- Ministry of Education (2019a). Support Plan for Improvement of School Media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9b). The 3rd Basic Plan for School Library Promotion(2019~2023).
- Park, Juhyeon & Kang, Bong-suk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dia information literacy concept and educational cont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223-250.
- Park, Juhyeon, Kang, Bong-suk, & Lee, ByeongKi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content structure for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1), 229-254.
10.16981/kliss.52.1.202103.229
- Park, Juhyeon, Lee, Myounggyu, Kim, Ji-Hyun, Kang, Bong-suk, Lee, Jisue, Sim, Hyojung, & Hollister, J. M. (2022). The development of a media literacy educational model for public librar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3), 335-362.